

연중 제 10 주일

기도서 367면 (C해)

제1독서: 1 열왕 17, 17-24

제2독서: 갈 라 1, 11-19

복 음: 루 가 7, 11-17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루가 7, 15).

□ 강 론



그리스도안에서의 새 생명을

강 덕 행 신부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지방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다 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게 해주셨다.

이 기적의 동기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이 나이가 젊고 또 과부의 외아들임을 아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고 외아들의 죽음을 슬피 통곡하는 이 어머니를 붙잡고 여기 시고 이 여인에 대한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슬피 통곡하는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 주신다.

우리는 보통으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아플 즉 실재, 고통, 병고, 이별, 죽음 등을 당할 때 매우 슬퍼한다. 그러나 영적인 상처 중에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이고 이 죄는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 죄는 죄의 근원을 이루는 칠죄종(七罪宗)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를 말한다. 즉 ①교오(驕傲) 교만하고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②간담, 하는 것이 소심하고 인색함, ③미색(羨色) 성욕의 노예가 되어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함, ④분노(憤怒)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냄, ⑤탐도, 음식이나 재물을 탐하여 지나칠 정도로 먹고 마심, ⑥질투(嫉妬) 우월한 사람을 시기함, ⑦나태(懶怠)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함이다. 이 칠죄종은 그 자체가 죄인면서 사람을 죄짓게 한다. 이 칠죄종은 다른 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교오(교만과 오만)에서 이기주의, 고집같은 것이 생겨나는 데 이기주의 등도 죄가 된다. 칠죄종 중에서도 교만이 으뜸이다. 따라서 교만은 모든 죄를 유발시키므로 “모든 죄의 어머니”라 한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덕을 쌓을 수 있는 기초이기에 “모든 덕의 어머니”라 한다.

또한 모든 의무의 불이행도 하느님과 우리 영혼에 상처를 준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 대해,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해, 각자의 위치에 따른 의무행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 자녀들 중에서는 주일날 하루만 성당에 다니는 ‘다니는 신자’ 즉 ‘발바닥 신자’들이 많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안에 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참회와 보속의 행위가 요구된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안에 죽어 있음을 슬피 통곡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면서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일어나라”하고 명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장수주임 신부)



월남이 주는 교훈 (2)

지난 주말의 전주지역은 참으로 어수선했다. 신민당의 개헌 추진 현판식과 재야세력들의 민중대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검문 검색이 있었다. 대회 당일에는 5월 신희과 어울리는 전투경찰의 숲에서 최루탄 선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전주시의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모습은 마치 전쟁과 평화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렇게 요란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우리들이고, 모든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인인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인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대권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다소곳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편익에 대한 이야기부터 헌법에 관한 의견까지를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각자가 각양각색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1일의 양태만 해도 그렇다. 재야세력의 민중대회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견제의 한 모습이다.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서 본다면, 재야세력은 뜻을 같이 하는 하나의 압력단체이다. 그런데 당국은 왜 이들의 소리에 전경과 최루탄으로 맞서려 하는가!

데모(demonstration, 시위운동)란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는 결코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다. 그러기에 여기에 많은 수의 전경과 최루탄은 필요가 없다. 오직 질서유지를 위한 호위만이 필요할 뿐이다. 국민의 의사표시를 막기 보다는 수렴해야 한다. 지나친 막음과 충돌, 여기에서도 우리는 월남사태의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숲 정 이 산책



선교사(宣敎使)를 기억하자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을 「선교(宣敎) Misiones)」라고 한다(선교 교령 5)

선교라는 교회의 보편적 임무를 특수한 모양으로 수행하게 되는 이 선교사는 교구 신부님이 외국에 주재하게 되는 여러 경우중에서도 특별한 의의와 소명이 요구된다.

이국(異國)인 만큼 언어의 장애는 물론, 지역적 여건에 따른 생활에 적응,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등, 어려움이 많고 특별히 개인의 깊은 영성과 선교에 대한 열성이 필요하게 된다. 또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교구는 지난해 7월, 세분의 사제를 남미(페루)에 선교사로 파견한바 있다. 정승현(요셉)신부, 김윤섭(안셀모)신부, 방의섭(베드로)신부이다.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더 어려운 형제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 교구의 성장과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선교의 임무를 교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좀더 넓고 깊게 펼쳐려는 의지의 결단이었다. 이들은 우리들의 형제적 관심과 격려속에 특별히 선택,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 세분의 신부님들은 그동안 멕시코에서 언어공부를 하면서 입지로 떠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었다. 이들은 이제 오는 7월초에 원래 선교 목적지인 페루로 떠나게 된다. 이제는 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들이 펼칠 선교사업과 선교활동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특별히 우리들의 정성을 모으는 날이다.

우리들이 파견한 그들을 새롭게 기억하며 격려의 손길을 모으는 날이다.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그곳에서 아주 귀하게 쓰여질 것이다. 그러므로써 그들의 선교활동이 풍부한 결실을 맺고 큰 보람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지게 될 것이다.

□성서교실 ㉠

젊은이여, 일어나라 (루가 7:14).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7:1~10) 다음에 루가복음에만 나오는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7:11~17)의 기사가 나온다.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파라디레 또이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죽은 사람을 예수가 살리신 것은 죄로 죽은 영혼을 성령이 살리신 채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예수만이 메고 간 상여를 보고 「젊은이여, 일어나라」(7:14)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살아났던 것이다.

「젊은이여 일어나라」(7:14). 이렇게 명령하신 분은 과연 누구신가? 「일어나라」고 자신있게 그리고 권위있게 말할 수 있는 그분이다. 「빛」의 내림이 「어두움」의 퇴거를 명령하듯이 말씀의 내림이 「죽음」의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7:15). 이것은 바로 놀라운 「변화」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예(例)도 이와 같은 것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몇 분 전만해도 「젊은이」는 죽은 총장으로 차디차고, 부패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새 생명의 「기운」으로 온 몸이 따뜻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의 부활능력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는 이제 「새 창조」인 것이다. 「낡은 것」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된 것이다.

「기적」은 예수의 「생명의 시여(施與)」를 말한다. 이것은 사랑의 불가항력적인 「폭발」인 것이다.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7:13)라는 말은 이것을 일러준다. 예수는 진리인 동시에 생명이며,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다(요한 1:4 참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주(主)」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 대입 종합반 · 단과반
감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생난방시설 완비)

全州 英中學院

조흥은행 앞 개 강: 7월 1일
☎ 82-3537

母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미 **美米星** 성
HANCBAG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 · 여행용가방 · 007
가방 · 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해 검 (글라라)

교 구 소 식

- ☆ **축!** 건진: 언저등 천주교회, 15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이리 기독교방송 가톨릭시간 안내: 매일밤 12시30분, 금주 방송담당-윤양호신부님
- 2. 수녀연합회 정기총회 및 영성 피정: 9일(오전 9시30분~오후 5시까지)
장소-화산(나바위)성당, 출발-9일 9시30분(중앙성당에서)
장사-김병엽 신부님·김종길 신부님, 회비-2천원
- 3. 본당 사목회 분과위원장 교육: 15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1인당 3천원(자료제공), 참가대상-재정분과·교육분과·전례분과
- 4. 6월중 균중후원회 월례미사: 14일 오후 3시, 장소-국군묘지
※ 균경 호국 연령 위령미사
- 5. 전주 레지아 회의: 15일 14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참석범위-각 꼬미시온 간부 및 산하 꾸리아와 직속 브레시디움간부 전원
- 6. 자연법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대상-미혼 남녀, 피임을 원하거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부부동반 환영)
일시-10일 오전 10시~12시 가톨릭센터 2층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3-5098)
- 7. 교구 교리교사 6월 월례회: 9일 6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2층
- **축!** 영명 성 바르나바(11일): 박영규 신부님
성 안토니오(13일): 권영균·양재철 신부님 축하합니다
- 교구청 직원 인사발령: 전자석(사목국 상서과장), 이수일(관리국 관리과장), 박형식(관리국 경리과장), 관리국의 서정길 부장은 퇴직함(4월 30일자)

※ 가정기도 독서: 시편 71:1~9 복음: 루가 13:34~35

♣ 잠깐!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내 어릴적 산골 고창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그러나 소리높여 하느님 찬미할 수 있는 작은 초가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꿈의 결실로 이 성전을 마련하여 하느님께 봉헌케 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대지 220여평의 작은 등산에 약 1억7천500만원으로 전경 282명의 아담하고 예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은인들과 피땀을 함께 해준 본당 교우들, 그리고 교구의 여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등산촌성당 권이복 신부 드림—

가짜 주교까지-
가짜 물건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데..., 최근에 가짜 주교까지 등장, 한심한 세상이다. 요르단 국적의 에드몬드 하다드라는 자가 유림과 극동지역을 오가며 주교로 사칭,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제 한국에 상륙할런지-,
요즘 교구내에서는 성공회 신학교 출신 30여세 남자가 신부로 사칭하고 다른 교구출신 신부로 속이며 각 본당과 신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신자들의 주의를 요하며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본당신부님께 즉시 상의,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후 마음좋은신신부님들께서도 속지 마시기를...

감사합니다
어린 장애자 농악대를 위해 농악기구를 마련토록(술정이가 주보 86. 5. 11일자 703호 참조) 이름도 없이 도움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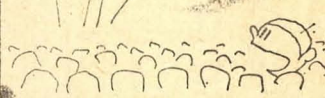
요심이 (670) 김병오

신민당 현판식장에서 재야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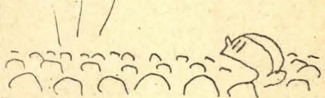


-전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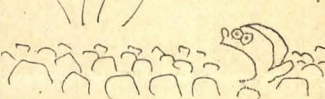
직선 개헌하라!



군사독재라도하자!



왕사꾸라는 자폭하라!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의과의원
외과전문의
소 흥 영 (요 한)
유 인 결 (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 3 6 6 8
자택 ☎ 8 1 2 0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개업
김 안 과 의 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 종 환 치 과 의 원

신라당 ○
판달로 ← → 오거리
주택 은행 ↑ ↓ 대화병원
김종환치과의원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전주시 서노송동 639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목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⑤ 1713
 수 녀 원 ⑤ 1712
 사 무 실 ⑤ 1711

★ 미사시간

주일 : 새벽미사-6시, 학생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아동미사-오후3시
 저녁미사-오후 7시
 평일 : 월-오전 6시, 화·수·목-오전 6시·오후 7시
 금-오전 10시30분(어머니미사), 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7시(특전미사)

☆ 예비자교리 안내

일반인 : 금-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반미사 안내 : 6월중 반미사는 쉽니다

본 당 소 식

1.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헌금신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신입 및 접수-사무실)
2. 해외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오늘, 미사 중
 ※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 신부님께
 적극 지원합니다
3. 병자봉성체 : 10일(화) 오후
 가정에 환자신자가 있으신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4. 모임 : 꼬미씨움-오늘 오후 2시
 상 지 회-11일(수) 오후 7시
 반장회합-13일(금) 어머니미사 후
 꾸 리 아-다음주일(15일) 오후 2시
5. 성인예비자(성탄반) 모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6. 견진사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 기념사업 헌금 신입 : 감사합니다
 엄익도-200만원, 이강성-5만원, 양옥선-5만원,
 염광섭-200만원, 방춘원-50만원, 임정우-10만원
 문순례-10만원, 박서운-100만원, 장남수-50만원
 임주택-50만원
8. 감사헌금 : 김안국·양기례-2만원
 지난주 봉헌금 : 983,040원 교무금 : 517,500원

오늘의 전례

기도서
367면

- 제 1 독서 : 열왕기 상 17장 17절~24절 (555면)
 응 송 : (후렴) 야훼님, 나를 구하셨으니, 내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1. 야훼님 나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나를 웃지 못하
 게 하셨으니 내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야훼
 내 하느님, 당신께 부르짖었삽더니 이 몸을 낮우어
 주시었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
 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후렴)
 2. 야훼님 찬양하라, 너희 그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 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후렴)
 3. 주여 듣자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
 는 분이 주여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
 로 바꾸시니 야훼 내 하느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후렴)

- 제 2 독서 : 갈라디아서 1장 11절~19절 (357면)
 복 음 : 루가복음 7장 11절~17절 (119면)
 영성체송 :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성체, 내 구원자사
 오니, 내 주여, 이 몸 숨겨주시는 바위 되사
 나이다

다음주 미사 해설자

- 특전미사 : 배 창 수(도 마)
 새벽미사 : 김 윤 섭(유스티노)
 학생미사 : 최 주 희(글 라 라)
 공식미사 : 김 태 곤(디모데오)
 (복사) : 김 완 준·김 한 영
 저녁미사 : 이 영 희(테 레 사)

♣ 중앙성당 교우의 집

가 나 약 국
 전주우체국 앞
 전화 2-5652
 황 의 욱(파로)

소아과 전문의
업 소 아 과
 (소방서 건너편)
 업 의 도(시몬)
 전화 3-5075

신축 이전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히말 앞)
 ☎ 병원 4-1225 자택 4-9886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